

## Session 8 David's Trouble in Nob and Gath (1 Sam. 21 and Ps. 34) 제 8 장 노파와 가드에서의 다윗의 어려움 (삼상 21 장, 시 34 편)

### I. DAVID WAS HELPED BY THE PRIESTS AT THE CITY OF NOB (1 SAM. 21:1-9) 다윗이 노파에서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다 (삼상 21:1-9)

- A. David asked the priests to give him supplies (21:1-4). David lied to the high priest Ahimelech, telling him that he was on a secret mission for the king.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다 (21:1-4).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왕의 비밀 임무를 맡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sup>1</sup>Now David came to Nob, to Ahimelech the priest. And Ahimelech was afraid when he met David, and said to him, "Why are you alone, and no one is with you?"<sup>2</sup>So David said to Ahimelech the priest, "The king has ordered me on some business, and said to me, 'Do not let anyone know anything about the business on which I send you, or what I have commanded you.' And I have directed my young men to such and such a place. (1 Sam. 21:1-2)

<sup>1</sup> 다윗이 노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sup>2</sup>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삼상 21:1-2)

- B. *Why David went to Nob:* David asked the high priest for food and weapons as well as to inquire of the Lord that he might receive prophetic direction from the Lord (22:10). The high priest had a garment called the *ephod* (14:3) with pockets carrying two stones called the *Urim* and the *Thummim* (Ex. 28:30). It seems they could ask a "Yes" or a "No" question and receive insight on the spot.

다윗이 노파에 간 이유: 다윗은 대제사장에게 음식과 무기를 요청했으며, 또한 주님이 자신을 예언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22:10).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14:3), 우림과 둠뫼미라고 불리는 두 개의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출 28:30). 그들은 이를 통해 "예" 또는 "아니오"의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up>3</sup>Ahijah...the LORD's priest in Shiloh, was wearing an ephod. (1 Sam. 14:3)

<sup>3</sup>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와 그의 증손이었던데라 ... (삼상 14:3)

<sup>30</sup>And you shall put in the breastplate...the Urim and the Thummim... (Ex 28:30)

<sup>30</sup> 너는 우림과 둠뫼미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 (출 28:30)

- C. *The city of Nob:* This was a national religious center about three miles south of Gibeah. Saul thought David was in Bethlehem with his family celebrating the New Moon festival (20:18).

노파: 이곳은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3 마일 정도 떨어진 국가적인 종교의 중심지였다. 사울은 다윗이 월삭을 기념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20:18).

- D. **Why are you alone:** Ahimelech was unsettled seeing David alone. The king's son-in-law arriving without an escort seemed unusual when there were so many raiding bands of the Philistines. Saul's anger was well known. Perhaps Ahimelech was aware of the recent events at Ramah when Saul sent soldiers in pursuit of David (19:19-24). Ahimelech was not comfortable with David being there.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홀로 온 것을 보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블레셋인들의 약탈이 성행하던 시기에, 왕의 사위가 아무런 병사들의 호위도 없이 온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사울의 분노는 잘 알려져 있는 바였다. 아마도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라마에 병사를 보냈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19-24).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이 마음에 편치가 않았다.

- E. **The king ordered me on business:** David told a lie about Saul sending him on a private mission.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임무를 맡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 F. David asked the priests for food (21:3-4). He had been in a field for three days and was hungry.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요청했다 (21:3-4). 그는 3 일 동안이나 들에 있었고 배가 고했다.

<sup>3</sup>Now therefore, what have you on hand? Give me five loaves of bread in my hand, or whatever can be found.<sup>4</sup>And the priest answered David and said, "There is no common bread on hand; but there is holy bread, if the young men have at least kept themselves from women."  
(1 Sam. 21:3-4)

<sup>3</sup>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sup>4</sup>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삼상 21:3-4)

- G. David assured Ahimelech that he and his men were ceremonially clean (21:5-6).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소년들이 성결함을 확인해줬다 (21:5-6).

<sup>5</sup>Then David answered the priest, and said to him, "Truly, women have been kept from us about three days since I came out. And the vessels of the young men are holy, and the bread is in effect common, even though it was consecrated in the vessel this day."<sup>6</sup>So the priest gave him holy bread; for there was no bread there but the showbread which had been taken from before the LORD, in order to put hot bread in its place on the day when it was taken away. (1 Sam. 21:5-6)

<sup>5</sup>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sup>6</sup>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삼상 21:5-6)

- H. Jesus validated David eating this. When healing on the Sabbath, Jesus used this as an example of keeping the spirit of of the law when not keeping its exact letter in a literal way (Mt. 12:3-4).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이 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셨다.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셨을 때, 그분은 율법의 문자적인 형태를 지키는 것이 아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의 예로 다윗의 일을 들었다 (마 12:3-4).

## II. DAVID ACQUIRED GOLIATH'S SWORD (21:7-9)

### 다윗이 골리앗의 무기를 취하다 (21:7-9)

- A. David acquired Goliath's sword (21:7-9). It was in the sanctuary at Nob as a memorial of defeating a powerful enemy. David put his trust in a sword that could not protect Goliath. Goliath said that day, "I come to you with my sword!" and David replied "...but I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를 취했다 (21:7-9). 이 무기는 강력한 적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높은 성소에 있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무기를 의지하고 있다. 골리앗은 그 날에 자신의 칼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아갔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갔었다.

<sup>7</sup>Now a certain man of the servants of Saul was there that day, detained before the LORD. And his name was Doeg, an Edomite, the chief of the herdsmen who belonged to Saul. <sup>8</sup>And David said to Ahimelech, "Is there not here on hand a spear or a sword? For I have brought neither my sword nor my weapons with me, because the king's business required haste." <sup>9</sup>So the priest said, "The sword of Goliath the Philistine, whom you killed in the Valley of Elah, there it is, wrapped in a cloth behind the ephod. If you will take that, take it. For there is no other except that one here." And David said, "There is none like it; give it to me." (1 Sam. 21:7-9)

<sup>7</sup>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sup>8</sup>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sup>9</sup>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삼상 21:7-9)

- B. **Doeg, an Edomite:** Doeg was Saul's chief herdsman, over his livestock, mules, sheep, and the many herds that comprised Saul's great wealth. A chief herdsman would be a person of importance, as one of Saul's top officials over much of his personal wealth.

**에돔인 도엑:** 도엑은 사울의 재산인 가축과 노새, 양 등을 돌보던 목동들의 대장이었다. 목동의 대장은 사울의 개인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로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 C. In Bible symbolism, an Edomite or Amalekites or Agagite spoke of the principle of flesh that was at enmity against God's purpose. The Edomites were hostile to Israel throughout the biblical history.

성경에서 나오는 상징에서 에돔인 또는 아말렉인, 또는 아각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육신의 원리를 의미한다. 에돔인들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다.

- D. David surely felt panic when he saw Doeg, knowing that he would go back and tell Saul (22:22). They both knew each other from working in the royal court in Saul's government.

다윗은 도엑을 봤을 때 그가 돌아가서 사울에게 말하게 될 것을 알고 분명히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22:22). 그들은 사울의 궁정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다.

- E. David's lie resulted in the tragic massacre of the priests and their families in Nob (22:18-19). After Saul heard that David's location had been discovered in the city of Nob, Doeg told him the story of how the high priest gave David supplies.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 높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비극적인 학살을 당하게 된다 (22:18-19). 사울이 다윗이 있었던 곳이 높이었다는 것을 들은 후에, 도엑은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준 사실을 말했다.

*<sup>6</sup>When Saul heard that David and the men who were with him had been discovered...<sup>7</sup>Saul said to his servants...<sup>8</sup>All of you have conspired against me, and there is no one who reveals to me that my son has made a covenant with the son of Jesse...<sup>9</sup>Then answered Doeg the Edomite... said, "I saw the son of Jesse going to Nob, to Ahimelech the son of Ahitub. (1 Sam. 22:6-9)*

<sup>6</sup>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 <sup>7</sup>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 <sup>8</sup>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 <sup>9</sup> 그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높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삼상 21:6-9)

- F. Saul commissioned Doeg to killed 85 priests in the city of Nob for helping David (22:18-19). Abiathar, the only surviving son of Ahimelech, joined David and became the new high priest.

사울은 도엑을 보내 높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움 것으로 인해 그들 85 명을 죽일 것을 명했다 (22:18-19).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합류해서 새 대제사장이 되었다.

*<sup>18</sup>And the king said to Doeg, "You turn and kill the priests!" So Doeg the Edomite...struck the priests, and killed on that day eighty-five men who wore a linen ephod...<sup>20</sup>Now one of the sons of Ahimelech...named Abiathar, escaped and fled after David...<sup>22</sup>David said to Abiathar, "I knew that day, when Doeg the Edomite was there, that he would surely tell Saul. I have caused the death of all the persons of your father's house. (1 Sam. 22:18-22)*

<sup>18</sup>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을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 ... <sup>20</sup>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 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 <sup>22</sup>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삼상 22:18-22)

- G. Being led by fear was a new experience for David. To trust God while overcoming pressures is one thing, but to trust Him when the pressures do not go away quickly is another matter.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에 밀려다니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 H. David was learning to trust in God in really tough times, not just the good times. The Lord asks us if we can trust Him in the challenging times. God wants us to be reliable, or stable, and strong in our faith through all the seasons. The Lord was building stability and confidence into David's life.

다윗은 좋은 시절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려운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시즌 가운데 믿을만하며, 안정적이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안정감과 확신을 세워나가고 계신다.

### III. GATH: DAVID SOUGHT SAFETY BY GOING TO THE PHILISTINES (1 SAM. 21:10-15)

가드: 다윗이 안전을 위해 블레셋으로 가다 (삼상 21:10-15)

- A. In a panic, perhaps after seeing Doeg, David fled to Gath seeking to be safe from Saul (21:10-15). David's rationale was that Saul, a coward who was afraid of war, would never cross the national boundary line. The only thing greater than Saul's hatred of David was his fear of the Philistines. So in despair David went into the land of Israel's enemies, the Philistines, to escape Saul.

도엑을 본 후, 아마도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기 위해 가드로 도망갔다 (21:10-15). 다윗은 사울이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에 대한 미움보다 더 큰 유일한 한 가지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따라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 사울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의 땅인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sup>10</sup>*Then David arose and fled that day from before Saul, and went to Achish the king of Gath. <sup>11</sup>The servants of Achish said to him, "Is this not David the king of the land? Did they not sing of him to one another...saying: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1 Sam. 21:10-11)

<sup>10</sup>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sup>11</sup>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삼상 21:10-11)

- B. **Gath:** There were five main Philistine cities to the west of Israel on the seacoast.

가드: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해변 쪽에는 블레셋의 주요 다섯 도시가 있었다.

- C. Forsaking the land of Israel, he went armed with Goliath's sword hoping to establish an alliance with the Philistines, the long-time enemies of Israel. Nothing was more improbable than that David, the Lord's anointed who defeated Goliath, would be seeking refuge with the Philistines.

그는 이스라엘 땅을 포기하고, 골리앗의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도움을 얻고자 그 땅으로 갔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인 다윗이 숨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 D. **Is this not David?:** They recognized him by face (21:11). David hoped to slip into their city without being recognized. The fearful, timid Christian conceals his colors, hoping he will not be recognized as a follower of the Lord Jesus.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그들은 다윗을 알아보았다 (21:11).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고 도시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두려워하고 소심해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1. Achish's attendants were aware of David's status as a folk hero celebrated with song.

아기스의 수행원은 다윗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칭송하는 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

2. He was immediately spotted and reported to Achish. His reputation throughout the countryside as Israel's leader filtered down among the Philistines

그는 즉시 발견되었고 아기스에게 보고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방에 알려진 그의 명성은 이미 블레셋에 잘 알려져 있었다.

3. David had been the chief nemesis of the Philistines for years after having killed Goliath (17:4) and having led various military excursions against the Philistines.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17:4),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여러 군사 원정으로 인해 블레셋의 원수가 되어 있었다.

- E. Why didn't Achish kill David? Perhaps David relieved him of a powerful rival for his kingdom in cutting off the head of Goliath. He knew that David was not guilty of desertion from the military in Israel and so assumed that he had burned his bridge with Israel. Maybe he was a bigger trophy for them alive and acting insane than he was in being killed

아기스는 왜 다윗을 죽이지 않았는가? 아마도 그들에게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린 자신의 나라의 강력한 숙적이 없어졌다는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탈영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알았었고,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과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라 생각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보다 그가 살아있는 전리품으로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F. **David was very much afraid:** He feigned or faked madness before King Achish. David pretended insanity at Gath (21:14-15). They said, "Death is too good for him. Get rid of him! Don't let this madman come into my house. Get rid of him!"

다윗이 ... 심히 두려워하여: 그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 다윗은 가드에서 미친 척을 했다 (21:14-15). 그들은 말했다, "그는 죽일 가치도 없다. 그를 내보내라! 이 미친 자가 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를 내보내라!"

<sup>12</sup>Now David took these words to heart, and was very much afraid of Achish the king of Gath. <sup>13</sup>So he changed his behavior before them, pretended madness in their hands, scratched on the doors of the gate, and let his saliva fall down on his beard. <sup>14</sup>Then Achish said to his servants, "Look, you see the man is insane. Why have you brought him to me? <sup>15</sup>Have I need of madmen, that you have brought this fellow to play the madman in my presence? Shall this fellow come into my house?" (1 Sam. 21:12-15)

<sup>12</sup>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sup>13</sup>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sup>14</sup>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sup>15</sup>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삼상 21:12-15)

- G. Launching into a tirade against David, Achish questioned why they allowed him into the royal palace.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한 장황한 연설을 하며, 왜 그를 궁정에 들어오게 했냐고 묻고 있다.

#### IV. PSALM 34: DAVID'S VICTORY OVER FEAR AFTER HIS TROUBLE IN NOB AND GATH 시 34 편: 놉과 가드에서의 어려움 후,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다

- A. The superscription to Psalm 34 says it was written when David pretended madness before Achish. Abimelech was probably his royal name and Achish his family name. Some kings had many names.

시 34편의 부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그의 왕의 호칭이었을 것이고, 아기스는 가족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었을 것이다. 어떤 왕은 이름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

- B. In this Psalm we can see how David felt and acted in getting victory over his fears. Psalm 34 could be called “David facing his fears and finding the Lord.” David had unusual confidence in the mercy of the Lord. That is what made David a worshipper. One of the defining qualities in David’s life was his confidence in God’s mercy, so he could come back time after time after failing.

이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느꼈던 감정과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다. 시 34편에는 “다윗이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주님을 발견하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보기 드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윗을 예배자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다윗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성격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수 많은 실패의 연속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 C. David’s commitment to bless God continually instead of giving into fear, complaint, condemnation (34:1-3): He intentionally renewed his mind and confessed the truth of God’s promises and power.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평,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을 항상, 계속해서 찬양하기로 결정했다 (34:1-3).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에 대한 진리를 고백했다.

***<sup>1</sup>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shall continually be in my mouth...<sup>3</sup>Oh, magnify the LORD with me, and let us exalt His name together. (Ps. 34:1-3)***

***<sup>1</sup>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sup>3</sup>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1-3)***

- D. David told *what he did* and *what God did*. David sought, cried out to, and feared the Lord (34:4-7)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고, 부르짖었고, 그분을 경외했다 (34:4-7).

***<sup>4</sup>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me, and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sup>6</sup>This poor man cried out, and the LORD heard him, and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sup>7</sup>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ll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delivers them. (Ps 34:4-7)***

***<sup>4</sup>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sup>6</sup>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sup>7</sup>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 34:4-7)***

- E. David told us what he taught the “children”—his curriculum in teaching the fear of God (34:11-14).

다윗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34:11-14).

<sup>11</sup>Come, you children, listen to me; I will teach you the fear of the LORD ... <sup>13</sup>Keep your tongue from evil, and your lips from speaking deceit. <sup>14</sup>Depart from evil and do good... (Ps. 34:11-14)

<sup>11</sup>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sup>13</sup>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sup>14</sup>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 34:11-14)

- F. David's key to getting free from fear and his life message (34:18): The mercy of God was one of David's life messages—that God enjoys His people, even when they are immature, if they will be honest about their sin and brokenness with a “yes to His leadership” in their spirit.

다윗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열쇠, 그리고 그의 삶의 메시지 (34:18):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메시지는 다윗의 삶의 메시지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즐겨워하시며, 그들이 미성숙할 때에도 자신의 죄와 깨어짐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마음으로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 동의”할 때에 그들을 즐겨워한다.

<sup>18</sup>The LORD is near to those who have a broken heart, and saves such as have a contrite spirit. (Ps 34:17-18)

<sup>17</sup>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sup>18</sup>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한글 KJV: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 34:17-18)

1. The Lord saves any who admit their sin to Him and cry out against it with confidence that He will be near to them and save them from the negative emotions that trouble their hearts.

주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를 건지시며,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들을 건지신다.

2. Many believers feel they are condemned and are failures (v. 22). They accept lies about what God is like. God differentiates between rebellion and spiritual immaturity.

많은 성도들은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패한 자라고 생각한다 (22 절).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하나님께 배역하는 자를 구분하신다.

3. David was one of the first to emphasize this truth that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e rebellious and the immature. This is one of the great doctrines in the grace of God.

다윗은 하나님께 배역하는 자와 미성숙한 자 사이를 구분하는 이 진리를 강조한 첫 번째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 G. After David committed adultery with Bathsheba and killed her husband (2 Sam. 11), he responded in a way that he knew God wanted—with a broken and contrite heart (Ps. 51:17).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후에 (삼하 11 장), 그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드리며 나아갔다 (시 51:17).



<sup>17</sup>*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these, O God, You will not despise. (Ps. 51:17)*

<sup>17</sup>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